

뉴스를 놀라게 하는 뉴스들

박 용 배

중재위원 · 전 한국일보 상무

르윈스키의 '야회복 흔적' 사건에 미국의 언론이 '열광적 보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검은 구름이 미국 저널리즘을 어둡게 하고 있다.

"소셜같은 기사들이 진짜 기사를 놀라게 하고 있다."는 제목은 워싱턴 포스트지 미디어 비평기자 하워드 컬츠가 내린 결론이다. 지난 6, 7 월과 8 월까지 이어 미국 언론계에서 일어난 표절, 오보, 과장보도에 대한 비평이기도 한 것이다.

이런 사실을 짧게 훑어보면서 우리는 미국언론이 칼럼과 보도, 특히 추적기사가 가져다 준 결과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자성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6 월 19 일 보스턴 그로브지는 여성 칼럼니스트인 패트리서 스미스가 "올해 들어 4 번이나 칼럼에서 인물을 조작해 물의를 일으켜 사직한다."고 발표했다.

스미스는 올해 풀리처상 논설부문 수상자이며, 작년에 미국 편집인협회가 주는 논설상 수상자이기도 한 흑인여성이다.

그녀는 이 날짜 칼럼에 '사과의 말'을 쓰고 이 신문을 떠났다. "나는 내 칼럼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은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이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심장을 만들 수는 없었다."고 했다. "이런 행위는 신문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최대의 범죄다. 누구도 이름을 조작하지 않아야 한다. 예외는 없다.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며 사과했다.

하버드대 앨런 데쇼비취 법학교수는 그로브지 백인남성 칼럼니스트 마이크 바니클이 두 가지 이상, 인용을 잘못했거나 도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8 월 7 설 칼럼니스트 바니클이 코메디언 조지 켈린의 책에서 나온 예를 적어도 네 가지 이상 자신의 발상처럼 꾸몄다고 사임을 촉구했다.

그로브지의 대표적 인기 칼럼니스트인 바니클은 표절이나 조작은 없었다면서 사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로브지는 2 개월 정적으로 방침을 바꿨다. 그러나 보스턴 저명 흑인여성들의 잇따른 항의와 95 년 칼럼에서 있지도 않은 흑인 신생아를 조작한 사실이 다시 드러나 8 월 19 일 그는 이런 사실을 시인하고 사임했다.

오하이오주의 신시내 터에서 발행되는 신시내티 인콰이어러지는 6 월 28 일 미국신문계 사상 처음으로 1 면 톱기사로 사과 및 정정 기사를 냈다. 5 월 3 일자에 실린 18 쪽에 달하는 '치키타 브랜드 인터내셔널' 회사에 대한 국제 바나나시장에서의 부정사실보도를 전면 정정하는 것이었다.

인콰이어러지는 "문제의 기사는 1 년여 동안 치키타회사 간부들간의 통화내용을 훔친 사실이 있다. 3 일간 사과문 게재, 치키타회사에 1 천만 달러의 배상을 하겠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또 이를 취재했던 마이크 갤러거 기자를 해임했다. 신시내터가 있는 해밀톤 카운터 검사는 갤러거에게 이례적으로 소환장을 발부했다. 치키타사도 7 월 2 일 갤러거를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다.

인콰이어러지의 기사는 치키타사가 남미 온두라스 칼럼비아 등지에서 대규모 바나나 회사를 갖고 유럽 등 세계 각지의 바나나를 불법적으로 관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간부들은 사업의

확장을 위해 뇌물을 주고 있으며 남미에 광대한 토지를 갖고 과다독성 농약을 사용하여 노동자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추적기사는 갤러거 기자의 통화내용 도청이 실정법을 위반했느냐는 것과 훔친 정보를 어떻게 보도할 수 있느냐는데 미국 언론계의 관심이 쏠리게 했다.

미국연방 수정헌법 제 1 조 전문 변호사인 프로이드 애브람즈는 "뉴스 정보를 얻는데 공격적인 행위는 헌법의 보장을 받지만 도둑질한 정보는 그렇지 않다."고 해석했다.

인콰이어러지 경영진은 "우리의 정보가 거짓이 아닌지는 누구도 모른다. 다만 통신메일을 훔치게 문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편집국의 의견은 좀 달랐다. "만약 담배나 식품 회사들이 독자들의 알 권리를 위한 기자들의 공격적 취재를 사유재산권 침해, 절도 등으로 해석해 막을 때 독자들의 알 권리는 제한되는 것 아니냐?" 로 집약되고 있다.

이러한 저널리즘의 먹구름이 피어날 때 CNN은 7월 2일 톰 존슨 회장이 직접 방송에 나와 사과성명을 읽어야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존슨은 "지난 6월 7일 'CNN 뉴스판매대'의 첫 방송에서 방송된 뉴스는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어 이를 전면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여성책임 제작자인 애프걸 오리버, 부책임자 잭 스미스를 해임하고 리포터였던 폴리처상 수상자 피터 아네트를 견책 조치했다.

'뒷바람 작전'이라 불리는 1970년 라오스에서 미 특공대 진입작전을 다룬 이 특집물은 큰 충격을 주었다. 인명을 빼앗는 사린가스가 카오스 베트콩 캠프에 뿌려졌고 적어도 2명의 미군 탈주자가 이 작전에서 사살되었다는 것이다. CNN의 자매사 주간 타임지도 이 기사를 게재했다가 사과했고 "그 내용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기사를 철회했다.

언론문제 전문 변호사인 프로이드 애브람즈 변호사를 단장으로 한 조사단은 20여 일간의 조사 끝에 결론을 내렸다. "그 동안 CNN, 국방성, '뒷바람 작전' 참전자, 인터뷰에 응한 관계인사 등을 다시 접촉한 끝에 내린 결론은 CNN이 주장한 것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증거도 없이 방송이 나갔다고 본다. CNN은 기사를 취소하고 사과하라."는 것이 있다. 이에 대해 제작자인 올리버와 스미스는 "이것은 CNN사와 국방부간에 어떤 압력작용이 있었다. 조직적인 진실 은폐며 결정적인 비방이다."라며 반박, 사임보다 해임을 택했다.

애브람즈 변호사는 "제작진이 만나 본 여러 사람을 다시 만나 언론인 입장을 떠나 조사한 바는 사린가스는 사용되지 않았고, 작전 참전자들의 증언은 제작진이 그들이 믿고 있는 신념의 방향으로 증거없이 끌고 간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했다.

CNN의 존슨 회장도 "뉴스산업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 · 공정 · 책임이란 명성을 얻는 것이다. 이번 보도는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그래서 18년간 지속된 방송국 명예를 위해 이를 취소한다."며 사과했다.

워싱턴 포스트지의 하워드 컬츠는 "일련의 '뉴스를 놀라게 하는 사건'은 특종을 얻겠다는 기자들의 특종경쟁과 시간에 쫓기는 기자들의 일상적인 현실을 말해주는 것이다."라고 했다. 우리언론도 중시해야 할 사건들임에 틀림없다.